

광주 유명 음식점 주인들 다 모였네

조선대 정책대학원 '외식문화 CEO 과정' 개설 요식업 대표 등 50명...16주간 음식문화 강의



조선대 정책대학원이 개설한 '외식문화 CEO 과정' 입학식이 7일 광주시 서구 조선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다. 광주 시내 요식업계 관계자 50명은 8월 중순까지 16주 동안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게 된다. /내영주기자 mjna@

광주 시내 내로라하는 음식점 주인과 요식업계 관계자들이 매주 한 차례씩 조선대에서 얼굴을 맞대고 광주의 음식문화 발전을 모색한다. 조선대 정책대학원(원장 이계만)은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와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7일 '외식문화 CEO 과정'을 개설 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신입생들의 화려한 면면이다.

광주 시내에서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듣는 유명식당 주인은 물론, 외식업체 대표, 음식 프랜차이즈 경영자 등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월 중순까지 16주 동안 전문가들로부터 음식문화 관련 강의를 듣는다. 수업료가 100만원이나 되지만 지방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유명 강사진과 알찬 커리큘럼 때문에 지원자가 몰렸다.

광주시 동구 불로동 일식집 송하

회관 대표 김봉순씨는 "훌륭한 강사진으로 구성돼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수업료 100만원의 가치는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구 삼각동 한정식당 조선시대 대표 이선주씨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온 음식점 경영에도 체계화가 필요하고, 음식문화를 선도한다는 광주에서는 더 더욱 그렇다"며 "문화 중심도시 인프라 구축의 필수사항 중 하나가 음식점 선진화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형년 아시아음식문화진흥추진위원장은 "음식업에 종사하진 않지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됐다"며 "광주, 특히 동구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음식문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내 구청 식음위생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 광주구청 김일중 위생관리계장은 "광주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노하우를 전문가들에게 습득해 행정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식문화 CEO 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외식산업 경영전략(정인태(주) 이티엔제우스 회장)

▲식품산업의 현황과 전망(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외식 프랜차이즈 전략(김태희 경희대 외식산업학과 교수) ▲메뉴관리와 원가절감(진양호 경기대 관광과 교수) ▲중요요리의 세계화(한복려 공중음식연구원장) ▲세계의 술 문화(심재혁 (주)레트컴퓨터 대표) 등의 강의를 듣게 된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시민 참여 늘리고 전국화 역점

광주시 5·18 28돌 63개 행사 확정...행사장 임시버스 투입도

광주시는 올해 5·18민중항쟁 28주년 기념행사를 지역성을 탈피해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17~18일에는 시민들과 외지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행사장을 경유하는 임시버스 5대를 운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7일 '제2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추진계획'을 통해

▲민중·인권·평화정신 계승·발전 기틀 마련 ▲시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18 정신의 현장화·생활화 시민실천사례 발굴·전파 ▲지역성을 탈피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키는 전략 모색 등 4대 기본방향을 밝혔다.

올해 5·18 행사는 '오월의 희망으로 세상을 보라'는 주제 아래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6개 분야 63

가지로 43가지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정신계승행사 7종, 문화예술 13종, 학술교육 5종, 시민참여 18종, 국제연대 3종, 전국행사 12종 등으로 시민참여행사가 보강됐다.

이 가운데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만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나머지는

'5·18 민중항쟁 28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 주관으로 열린다.

시는 17~18일 5·18자유공원~광주시청~5·18기념문화센터~광천터미널~광주역~옛 전남도청~국립 5·18민주묘지를 경유하는 45인승 임시버스 4대(배차간격 25분)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7일 오후 시청 세미나실에서 자치구 담당팀장, 경찰서 경비계장, 5·18 행사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부서별 자원계획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불법 추정차 견인 올스톱?

위탁 맡은 민간업체 적자 허덕...남구 1년도 안돼 업무 중단

불법 추정차 견인업무가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각 구청이 선정해 민간업체로 넘어간 지 1년도 채 안됐지만 일부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견인을 중단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각 구청 견인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추정차 견인업무가 민간업체로 위탁된 후 인력·장비·경험 부족 및 단속 공무원과의 협조체제 미비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매달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남구의 민간업체 '크린견인'의 경우 적자 경영을 견디다 못해 지난 3일부터 견인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크린견인'측은 지금까지 2억4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매월 800만원 상당의 적자를 내 모두 8천8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남구청에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단속 업무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측은 또한 다른 구청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 1천200여대의 불법 견인 업무를 하는데 비해 남구는 구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800여대 가량만 단속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 정모(48) 사장은 "다른 구청은 야간까지 단속을 하는데 비해 남구의 경우 시민 계도가 우선이라며 오후 4~5시가 되면 단속을 중단해 교통이 마비되기도 한다"며 "야간 단속 등 다른 구와 비슷하게 견인업무

를 하게 해 준다면 업무를 재개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청을 상대로 손실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 구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구 민간 업체는 5억을 투자해 지금까지 3천만원의 적자를 본 상태며, 동구는 4억을 투자해 8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타 구청에 비해 힘든 환경이었지만 단속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적자를 보전해 주거나 아니면 업체를 바꾸는 방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시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발대

자원봉사 리더 양성 생활밀착 봉사 주력

(사)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중 단위 자원봉사 증대실 운영을 통해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7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08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발대식(사진)을 갖고 자

원봉사 리더교육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 리더 100여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다.

발대식이 끝난 뒤에는 자원봉사

리더 양성 교육이 실시됐다. 오는 9일까지 사흘동안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로 확대된 '핸즈 온(Hands On)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광주 각 구별 자원봉사마을만들기 사례가 소개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500부터 (식,주,주방,음료 포함)
 최.저.가. 1인 1만원 이상으로 1인당 20% 할인 혜택도 부가됩니다.
 ☎예약전화 : 021-228-8000 ☎문의전화 : 021-228-4711~2

SONY BRAVIA

고객감사 大 축제
 최고의 특별을 준비하는 Full HD TV BRAVIA를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형형 HDR-SR12
 FULL HD 1080P, 120Hz, 48인치

527-3388

재혼만 11년!

같은 양반형사는 우범의 딸을 사며...
 재혼만 11년!...
 527-3388